



영남 제일의 누각 '촉석루(矗石樓)' 3면에서 계속

뉴스 다시보기

낙동강 하굿둑 어떻게 해야 할까

낙동강 하굿둑 열면 바닷물 역류 양산 물난리
(2017.1.17. 경남도민일보)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염해피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87년 완공된 낙동강 하굿둑이 조성된 지 30년. 그동안 하굿둑은 갈수기 낙동강 하류의 용수공급에 도움을 주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수질악화, 퇴적물의 오염, 하굿둑 상류의 토사퇴적으로 인한

홍수예방 및 항구기능의 쇠퇴와 기수역 생태계의 소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따라 하굿둑 개방과 기수역 복원으로 생태계 회복과 더불어 미래의 성장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하굿둑 개방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굿둑 조성으로 하천 생태계가 변화된 것처럼 사람들의 삶도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하굿둑으로 인해 변화된 토지이용과 산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은 당연한 일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얹혀있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의 이해관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앞서 하굿둑을 개방하고 해수유통을 시도하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에서도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들의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강서 공업용수 정수장과 취수원을 덕산정수장으로 이전하여 취수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월촌리 농수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하굿둑 개방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환경부에서 수행한 낙동강 기수역 생태복원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문조절로 염분 침투범위를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부산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염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하굿둑이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줘 양산신도시가 물에 잠기는 사태를 방지했다는 주장과 함께 하굿둑 개방 시 역류로 인한 범람이 나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기수에 불과하다. 상류 유역의 유입량이 많은 우기에는 하굿둑의 전 수문을 개방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있어, 바닷물이 역류하여 양산천이 범람할 수도 있다는 주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하여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더 많은 소통과 논의를 통해 낙동강 하구의 건강한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성기준
부경대학교 교수

지면안내 >> 1면 물 이야기 & 뉴스다시보기 / 2면 기고&현장인터뷰
3면 문화&연구동향 / 4면 소식&독자소리

물 이야기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



최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개발 성장기인 1990년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오염된 하천수를 취수하여 일반 정수처리 과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던 때에는 달리 국민소득 2만

불시에 고도 정수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수도사업자는 음용률을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통계조사 결과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경우가 지역별로 14~37%로 나타나고 있다. 수돗물을 대신해 마실 수 있는 물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많은 가정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사회적 비용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상수도 관로가 18만km이며, 이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로가 5만8천km다. 또한 전국 정수장 515여 개소 중 30년 이상 된 정수장이 201개소다. 오래된 수도시설을 현대화를 통해 국민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2~3조 원 정도의 시설개량 비용이 필요하며, 국민 요구수준에 적합한 수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10년 간 30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에 걸맞은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좋은 원수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4대강 개발 사업을 통해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었으나, 하천 수질관리를 통한 깨끗한 원수를 이용해 정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미량유해물질(1-4 Dioxane, Perchlorate)과 환경 호르몬 등에 노출되지 않은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1990년 이전에 설치된 수도시설 재구축 사업을 통해 수돗물의 생산 공급 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 셋째 시설물 유지와 운영관리를 위해 IoT, AI,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수도시설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설물 운영관리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가 재구축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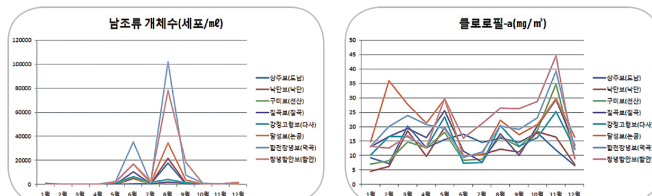


도중호
(취한국종합기술 상무)

녹조 예보

2016년도 월별 낙동강 녹조현황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낙동강 보 구간 남조류 개체수와 클로로필-a 농도를 도식화해보았다. 올해도 「낙동강소리」에서는 녹조예보를 통해 낙동강 수계 녹조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낙동강 하굿둑의 두 얼굴



박상길
부산대학교 교수

강물은 정제 없이 흘러야 썩지 않는다. 낙동강 하굿둑 건설 30년이 지난 오늘 강의 생태환경을 살려 자손대대로 물려주자는 데는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은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낙동강 하굿둑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하굿둑도 지역민의 생활 및 국가경제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쳐 경제대국을 이루기 위한 국가기반시설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 우리는 부산, 울산, 창원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낙동강 하굿둑으로 담수시킨 물에 의존하고 있다. 강의 생태환경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원인을 낙동강 하굿둑 건설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특히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류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전문가들은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굿둑건설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 나를 더욱 슬프게 한다.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둑을 개방하자는 주장은 궁극적으로 낙동강 하굿둑 상류지역의 취수원을 해결하자는 뜻이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에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싶다. 개방을 하면 어떤 일이 예상될까? 두 말할 것 없이 갈수기에 이 지역은 제한급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첫째, 간조 때만 취수가 가능하여 취수량이 부족하다. 둘째, 하굿둑 수문일부를 개방하면 갈수기에 침투된 염수는 바다에 고여 이것을 밀어 낼 유량이 모자란다. 셋째,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과 가뭄이 5년 주기로 찾아오고 있다. 이로 인해 갑조하천에서 염수침투가 침투가 매우 쉬워지고 있는 경향이다.

장래에도 영원히 하굿둑 수문개방을 못하고 이대로 살아야 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강의 혜택을 일시적으로 국가에 양보했다. 담수 확보를 위해 낙동강 하굿둑을 건설했으며, 이를 통해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았다. 사람과 자연은 서로 아끼고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낮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올해를 원년으로 생각하는 기반시설투자에 대한 인내력이 필요하다. 낙동강 하굿둑의 두 얼굴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기존 취수원을 염수침투가 없는 위치로 이전시키고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문을 열어 녹조발생 막아야



김명기
생태환경연구소 대표

낙동강의 생태계와 수질환경이 4대강사업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실제 많은 조사에서 생태계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강의 종적인 개념인 생태연결성이 결여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낙동강 하류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는 기수역 생태계로 하굿둑 건설로 강의 건강한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기수성 및 회귀성 어류가 낙동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다. 이에 최근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에 대한 국제포럼, 지역포럼 등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하굿둑을 중심으로 염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굿둑의 개방과 함께 기수 생태계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굿둑의 개방은 새만금방조제의 예와 같이 수질개선과 더불어 어류의 개체 및 종의 증가 등 생물다양성의 확대에 이어서 강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역에도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낙동강에서 출현하는 어종으로는 뱀장어, 붕어, 잉어, 치리, 모래무지, 누치, 동자개 등이 있다. 치리는 우리의 고유종으로 낙동강에 서식하지 않은 종이었으나 낙동강에 이입되었고, 그리고, 강준치도 이입되어 낙동강에서 많은 개체수를 차지하는 우점종으로 되어 있다. 외래종인 뽕붕어, 블루길, 큰입배스도 많은 개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외래종은 한번 도입되면 퇴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번식하며 육식성인 경우가 많고 토종물고기가 잡아먹히는 등 강에 사는 고유어종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낙동강의 어류는 하굿둑을 조성하기 전에는 잉어, 민물장어, 은어 등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어부의 진술이 있으나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며, 하굿둑의 어도를 통해 일부 기수성 어종인 잉어, 송어, 전어 등이 출현하고 있는 정도다. 낙동강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강의 연결성을 확보하며, 강의 상류까지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류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지름길은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이라는 특단의 대책이다.

환경 에세이

마시다 남은 생수병, 어떻게 하시나요?



축제의 현장이나 행사장에 가면 무엇이 제일 흔하게 느껴지는지요. 물을 사서 먹는 편리한 시대가 되고나서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것이 생수병인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버려져 나뒹구는 것이 물이 남아있는 생수병입니다. 빗물까지 모아서 사용하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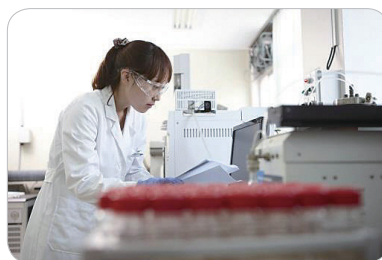
지구의 70%가 물이며, 인체의 70% 또한 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물은 자원인 동시에 생명입니다.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두 모금 마시다 남은 생수병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당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돈으로 산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공원에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는 것 못지않게 남은 물 가져가기가 중요한 일입니다.

남은 물이 돈이라면, 그냥 두고 가시겠습니까 - 수필가 허봉조

현장인터뷰

경남지역 민간 검사기관 최초 국제숙련도 인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측정검사센터



경남 진주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측정 분석센터 유도건 실장을 만나 센터의 특성과 어려움에 대해 들어보았다.

환경측정분석센터에서는 먹는물, 대기, 소음·진동 등 환경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검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2014년 이후 매년 환경부 주관 검사능력 숙련도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국제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수질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체 유해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분석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분석능력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미래가 촉망되는 직업이라는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도 검사기관의 데이터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민간차원에서 검사능력 테스트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의 환경문제에 일조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분석에 임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낙동강 발원지를 찾아서

<제11편> 남강

남강은 경상남도 남부 지역으로 유입되는 낙동강 지류로 연장 247.8km의 장대한 물길을 이루면서 총 4,128㎢의 넓은 유역을 곁에 두고 있다.



남덕유산의 맥박과 숨결이 한반도 남서부 충적지 들판을 적시며 상선약수(上善若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의 의미를 사방에 흩뿌린다.

함양군 서상면에서

안의면까지의 22km가 제1차 물길인 지방2급 하천 구간이고, 안의에서 유림까지의 40km가 제2차 물길인 지방1급 하천, 이어서 유림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함안군 대산면 낙동강 합수지까지의 185km가 제3차 물길인 국가하천구간이다.



1,507m의 남덕유산 정상부 남쪽 비탈에 자리 잡은 '참샘'은 각 산마다 이루어져 있는 골짜기와 언덕의 '결'자리에서 평평한 언덕의 분지면을 택해 작은

샘터를 만들어 왔다. 흔히들 계곡 쪽에 형성되어 있는 발원지 물터와는 지세 상으로 조금은 특별한 편이다. 남강 물길의 시원은 '주먹만한 원통형'으로, 표고 1,337m에 있으며, 자연형태의 모습이 바뀌어 대리석으로 보호막을 친 상태에서 어쩌면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

안내판에 의하면 샘터의 관리는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고, 수질관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남강의 발원지인 '참샘'은 그냥 남덕유산만의 샘터가 아니라 백두대간 남단에 모여든 산중산상의 선물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남강을 빗줄로 살아있는 대 공동체가 상류로부터 함양, 산청, 진주, 의령, 함안이 있고 31개의 읍면에서 약 42만여 명의 사람들이 생활계를 이루고 있다. 또 이 남강을 빗줄삼아 축적해 놓은 진주를 비롯한 대 공동체의 정신문화는 그야말로 '상선약수'의 저변이 되고 나눔과 가꿈과 행복의 에너지가 되어 상생의 꽃을 피우게 한다.



(사)낙동강공동체대표 김상화

- ①황지 ②반변천 ③내성천 ④영강 ⑤위천 ⑥병성천
⑦감천 ⑧회천 ⑨금호강 ⑩황강 ⑪남강 ⑫계성천
⑬청도천 ⑭화포천 ⑮양산천



여행스케치

낙동강 발원지로부터 물따라 맛따라 축석루(矗石樓) 아래 강변산책로를 걸으며



남강 주변에는 곳곳에 역사문화유적이 빼곡하다. 그중에도 진주의 상징이자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축석루를 빼놓을 수 없다.



예로부터 남으로는 진주 축석루, 북으로는 평양 부벽루라고 할 만큼 아름답다. 축석루라는 이름은 '강 가운데 돌이 우뚝 솟은 까닭에 누의 이름을 축석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전사에는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였고, 평화로운 시절에는 시인 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던 명소로, 또 과거를 치르는 고사장으로

쓰이기도 했다. 지금도 축석루 천장 사방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각종 글씨와 그림들이 즐비하다. 축석루 앞에는 총절의 상징인 의기논개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인 의기사가 있고, 축석루 아래 남강에는 논개가 왜장을 안고 강물로 투신한 바위 '의암'도 만날 수 있다. 진주성 아래쪽 남강 옆으로 아름다운 강변산책로가 조성되어,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며 걷기에도 매우 편안하고 좋다.



▶ 먹거리

진주성 주변으로 먹거리가 많다. 특히 장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이 즐비한데, 장어구이와 장어탕이 제 맛이다. 반찬도 다양해 한 끼 식도락을 즐기기에 충분하며, 간식거리로 연잎과 치자가루를 넣어 만든 빵 종류를 구입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연구동향

● 부산센터, 낙동강 하구 쇄제비갈매기 번식지 복원 조사연구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최근 낙동강 하구 사주의 쇄제비갈매기 개체 수 급감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하구 쇄제비갈매기 번식지 복원 조사연구」를 2016년 추진했다. 이는 쇄제비갈매기 번식 동지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번식지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현안 환경조사연구사업으로, 낙동강 하구 일대의 신지도, 도요등 등 쇄제비갈매기 서식지역의 현장 관찰로 먹이량 감소, 번식지(지형) 변화 등의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일본 및 경북 안동호 등 국내·외 서식지 조사결과와 비교해 낙동강 하구 내 쇄제비갈매기 번식 가능 지역과 조성방안을 제시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는 이 조사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향후 쇄제비 갈매기 번식지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철새도래지로서의 낙동강 하구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북센터, 형산강 중금속 오염 발생원인 파악 위한 긴급현안과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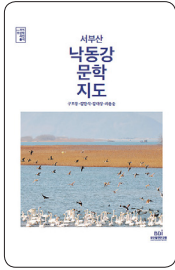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환경사고 해소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포항시에서 제안한 「형산강 지천(구무천)의 중금속 오염 원인조사 및 저감대책 연구」를 2017년 2월부터 4개월간 긴급현안과제로 추진한다.

본 연구는 구무천 일대 중금속 오염 분포도 조사, 오염원인(중금속) 규명을 통한 환경개선 대책 등 정밀한 발생원인과 중금속 저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포항시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중금속 오염원 원천 차단, 배출업소 오염수 적정처리, 오염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따른 환경개선,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다각적인 중금속 저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의 배경은 형산강 수은 기준초과 검출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 2016년 포항시 환경사고 이슈로 거듭 부각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원인규명과 저감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열망하는 포항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Now

부산발전연구원, 「서부산 낙동강 문학지도」 발간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에서는 전체 낙동강 중 행정구역 상 부산에 속하는 22km에 대한 문화적 발자취를 담은 '서부산 낙동강 문학지도'를 1월 25일 발간했다.

이 책은 근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학 속에 나타난 낙동강을 작품에 등장하는 장소와 공간을 따라가며 등장인물의 삶의 터전인 낙동강을 되새기고 있다. 또한 서부산 낙동강을 끼고 살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과 모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을 주인공으로 한 인류학적 고찰을 시도했다.

특히 부산 강서구 명지지역은 염전이었다가 1960년대 간척사업 후 과밭으로 바뀌었으나, 지금은 주거단지가 들어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명지지역의 모습과 서부산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책의 내용은 부산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bdire.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2017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월 9일(목) 통영에서 「2017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 워크숍은 2017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공모에서 선정된 각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것으로, 2016년 우수 지원사업에 대한 시상과 발표에 이어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보 교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수계에 인접해 있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화학물질 사고 대비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점검결과 설명회」 개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하고, 울산대학교 환경연구소,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점검결과 설명회」가 지난 1월 19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됐다. 이는 2016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울산지역의 석유화학업종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효과를 기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해마다 개최 예정이며, 울산지역 대기질 현황과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한 현장관리자 역량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Festival



▲경상북도 울진군청 홈페이지

- ▶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17.3.2~17.3.5,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광장 일원)
- ▶ 배내골고로쇠축제(17.3.4~17.3.5, 경상남도 양산시 배내골홍보관 일원)
- ▶ 원동 청정미나리축제(17.3.1~17.3.31,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 함포, 내포, 영포 마을 일원)
- ▶ 죽장고로쇠축제(17.3.11, 경상북도 포항시 서포종·경북간호고등학교 운동장 일원)

독자참여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게재되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낙동강수계 통합물관리 연구네트워크

발행·편집·인쇄 : 대구·경남·울산·경북·부산 녹색환경지원센터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오산관 404호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 대표전화 053-580-6291 | Fax 053-580-6292 | degec@degec.or.kr

News Room

영남권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공모

영남권(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 하고자 환경 정책 연구 사업, 환경현안조사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각 분야의 2017년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책임자 공모를 오는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센터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제7기 캠퍼스 에코리더」 모집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대학 내에서부터 친환경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 대학생들을 공모를 통해 「캠퍼스 에코리더」로 선정한다.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그간 총 492명의 에코리더를 배출했고, 대구·경북지역 11개 대학에 친환경생활 실천운동을 확산한 바 있다.

제7기 캠퍼스 에코리더는 2017년 2월 27일 ~ 3월 10일까지 총 15개 팀, 100명 내외로 모집하며, 위촉된 에코리더는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각 대학에서 친환경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에코리더 활동을 위해 탐별 활동비 지원, 활동실적에 따른 장관상 등 포상,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생태문화 캠프, 취업정보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물복지 무료혜택 4가지」 지원

부산광역시에서는 수도물 음용률 제고 및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형 물복지 4가지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주택 내 수도관 노후화 진단,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 교체, 옥상물탱크 철거 및 수도물 직결 급수, 맞춤형 음수대 설치 등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부산시청 120 바로콜센터 또는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문의 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